

신뢰, 기부태도 및 기부행위간의 구조적 관계

노연희* · 정익중**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부행위와 신뢰간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일반적 사회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 기부에 대한 태도, 개인의 기부행위 간의 영향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2018년 기빙코리아 조사자료의 19세 이상 성인 2,011명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회신뢰는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둘째, 기부에 대한 태도가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사회신뢰, 비영리부문신뢰, 기부에 대한 태도, 기부행위

※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와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논문투고 2020년 2월 26일, 심사완료 2020년 4월 17일, 게재확정 2020년 4월 20일

※ DOI : 10.16999/kasws.2020.51.2.5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주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교신저자), ichung@ewha.ac.kr

I. 문제제기

비영리조직은 일반적으로 사회 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전제로 활동하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시민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정자원을 기부한다. 기부자들은 실질적 기부대상인 비영리조직들이 조직의 종사자나 소유자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취약한 사회계층이나 인구집단을 위해 자신들을 대신해 제대로 활동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Bekkers, 2003), 이러한 관심은 신뢰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신뢰는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부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하다(Meijer, 2009; Sargeant & Lee, 2002a). 비영리조직의 입장에서 일반 시민의 기부는 주요한 재정자원으로 조직 활동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제고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비영리조직들이 그들의 재정자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기부행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천적 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신뢰의 문제가 개인의 기부행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신뢰를 사회구성원에 의해 집합적으로 공유되는 가치와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사회참여 등의 요인들과 함께 사회자본을 형성하며, 이러한 요인들이 기부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시해왔다(Brown & Ferris, 2007; Putnam, 2000; Uslaner & Brown, 2005). 그러나 사회자본이론에 기반한 경험적 연구들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도 못한다. 일부 연구들은 기부행위가 신뢰, 호혜성, 연대감과 같은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한다고 가정하지만(Uslaner & Brown, 2005), 또 다른 연구는 신뢰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기도 한다(Wang & Graddy, 2008). 이러한 차이는 기부행위가 비영리부문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에 따라 상이한 수준에서 신뢰를 측정하여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신뢰는 전반적인 사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차원에서도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박병진, 2007), 전반적인 사회신뢰와 개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실질적 기부대상으로서 비영리부문이나 조직에 대한 신뢰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흐름의 연구들은 기부자와 비영리조직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실질적인 기부대상으로서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이 기부 의도, 기부액이나 기부 지속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다(Sargeant & Lee, 2002b). 그러나 개인의 기부행위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정 기부대상에 대한 신뢰만으로 개인의 기부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Sargeant & Lee, 2004). 특히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동이라는 특성을 지닌 개인의 기부행위는 기부에 대한 도덕적 규범이나 의무

감과 같은 개인의 태도나 인식이 영향을 미친다(Bennet, 2006; Cheung & Chan, 2000; Meijer, 2009; Oosterhof, Heuvelman, & Peters, 2009).

사회자본이론은 전체 사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직접 관계를 맺는 대상과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개인적 신뢰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만, 개인의 기부행위에 초점을 두는 경험적 연구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주로 일반적인 사회적 신뢰수준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다른 차원의 신뢰수준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부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지 못하며, 기부자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이나 태도와 같은 개인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요인들이 기부행위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한다. 따라서 기부행위와 신뢰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부에 대한 개인적 태도 등을 보다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뢰와 개인의 기부행위간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부자가 인식하는 신뢰의 수준을 전체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각각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는 신뢰수준이 어떤 경로를 통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기부행위가 이타적이고 도덕적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경험을 통해 형성한 기부자체에 대한 도덕적 태도가 신뢰와 기부행위간의 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사회자본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을 통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심층적이고 통합적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던 신뢰와 기부행위간의 인과관계 및 기부에 대한 개인적 태도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검토

1. 사회자본이론: 사회적 신뢰와 기부행위간 관계

기부행위와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호혜성, 사회참여, 사회적 네트워크 등과 같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사회자본이 전체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Putnam(2000)은 시민들의 자원봉사나 기부행위가 사회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기부행위를 사회참여라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보고(Brown & Ferris, 2007) 신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연구들은 개인의 기부는 타

인을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운명을 공유하며,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뢰수준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Brown & Ferris, 2007; Uslaner & Brown, 2005; Wang & Graddy, 2008).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기부행위를 포함한 사회참여는 신뢰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한다(Newton, 2001; Knack & Keeper, 1997; 이재혁, 2006).

사회자본이론은 개인의 행동이나 삶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경험적 연구들은 기부와 같은 개인의 참여활동이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사회적 신뢰의 형성이 이러한 시민의 참여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다(Newton, 2001). 예를 들어 사회자본이론에 기반하여 한국사회의 기부행위와 신뢰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강철희 외(2015)는 사회전반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기부노력을 보여주는 기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지만, 미국의 기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회신뢰가 기부액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Wang & Graddy, 2008). 또 다른 연구는 심지어 기부행위와 신뢰는 선후관계가 명확하기 보다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라고 주장하였다(강철희, 2007). 그러나 기부가 이루어지고 사후 시점에서는 신뢰와 기부가 상호영향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신뢰가 기부보다 선행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다.

Bekkers(2003)는 전반적인 사회적 신뢰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기부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면서, 이 관계가 직접적이기 보다는 비영리조직의 인증제도에 대해 인식하는 경우 기부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공식적인 인증은 조직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수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 사회에 대한 신뢰보다는 기부대상으로서 비영리부문과 관련된 신뢰의 중요성과 기부행위와 관련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과는 개인이 참여하는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결사체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Stolle, 2001).

사회자본관점에서 사회적 신뢰는 전체 사회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사회신뢰와 그 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두 가지 차원의 신뢰 모두 사회참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된다(Dekker & Uslaner, 2001; 박병진, 2007). 사회자본이론의 관점에 기반한 신뢰와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들은 전체 사회나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의 수준을 강조한다. 그러나 개인의 기부 의도나 기부액과 같은 구체적인 기부행위에 있어서는 전체 사회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기부자와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기부를 받는 비영리부문이 신뢰할만하다고 인식하는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의 신뢰를 포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Uslaner와 Brown(2005)은 집합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신뢰와 사회참여간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며, 경제적 평등수준이 사회참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신뢰가 이 관계를 매개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체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사회적이고 집합적 현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여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이재혁, 2006), 개인의 자발적 의지나 이타주의적 속성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개인의 도덕적 행동으로서 기부를 설명하는데 본질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Newton, 2001). 따라서 개인의 자발성이나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활동으로서 개인의 기부행위는 전체사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기부행위를 매개하는 비영리부문이나 이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은 학습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개인들의 도덕적 의무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odery & Baskerville, 2011).

2. 사회인지이론: 기부에 대한 태도, 신뢰 및 기부행위간 관계

사회자본이론은 개인의 기부행위와 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기부자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기부행위는 실질적인 기부대상으로서 비영리부문과 비영리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타인을 위한 행동으로서 도덕적 의무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인지이론에 기반한 연구들은 이타주의적 태도나 도덕적 의무감, 기부나 자선적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부문에 대한 태도 등이 구체적인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Cheung & Chan, 2000; Oosterhof, et al., 2009).

사회인지이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체적인 행동과 인지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논의하는데,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이나 태도는 서로 관련되며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Bandura, 1982; Oosterhof et al., 2009). 특히 인간의 도덕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감이나 책임감 등에 관심을 둔다(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내재화된 도덕적 의무감은 비용이나 보상에 대한 고려없이 기부와 같은 이타주의적 행동을 이끌어낸다(Cheung & Chan, 2000). 따라서 기부행위는 타인을 돕는 도덕적이고 이타주의적 행동으로서 기부자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 또는 긍정적 태도를 지니는 경우 기부여부, 기부지속이나 기부액 등 실질적 기부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동시에 내재화된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는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로써 비영리부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기부로 이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인지이론은 또한 부분과 전체(part-whole)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일관된 방식으로 관련된다는 인지의 일관적 연계성에 대해 제시한다(Inglehart, 1991; Cheung & Chan, 2000

재인용). 이는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대한 신뢰는 전체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는 기반이 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자본이론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신뢰와 특정한 목적을 지닌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 신뢰가 구분이 된다고 가정하지만, 이 두 가지 차원의 신뢰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사회인지적 관점에 제시하는 부분과 전체에 대한 일관된 개인의 태도에 대한 가정을 고려하면, 사회 내에서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활동하며 기부대상이 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는 전체 사회나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일반적 사회신뢰에 정적(+) 관계가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기부자체에 대한 내재화된 긍정적 태도는 개인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에 우호적 태도를 이끌어내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전체 부문에 대한 신뢰, 기부대상으로서 조직들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는 비영리 자선조직들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이 조직들에 대한 신뢰를 통해 기부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eung & Chan, 2000; Oosterhof et. al., 2009). 특히 Cheung과 Chan(2000)은 기부에 대한 태도가 기부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신뢰와 특정 조직에 대한 신뢰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Oosterhof 외(2009)는 기부에 대한 태도는 조직자체에 대한 기부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특정한 이슈와 관련된 모금캠페인에 대한 기부의도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 경험적 연구들은 사회인지적 관점이 제시하는 전체 사회에 대한 태도와 비영리부문이나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한 태도간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인지적 일관성 연계(cognitive consistency linkage)를 지지하였다.

기부자와 기부대상으로서 비영리조직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마케팅적 관점에서 개인의 기부행위를 다루는 또 다른 연구들 역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일반적 인 사회신뢰와 기부자체 또는 기부수혜대상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간의 관계에 대해 보고한다. Sargeant와 Lee(2002a)는 자선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태도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였으며, Bennet과 Gabriel(2003)은 수혜자에 대한 관심이 기부액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고려할 때, 자선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도덕적 또는 긍정적 태도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부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기부에 대한 태도, 신뢰 및 기부행위간 관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

사회자본이론은 사회참여의 한 유형으로서 기부행위와 다른 사회자본 요소인 신뢰간

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 기반을 제공해왔다(Uslaner & Brown, 2005; Wang & Graddy, 2008). 또한 기부행위를 포함한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신뢰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측면과 사회 내에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나 부문에 대한 신뢰로 구분되며, 이 두 차원의 신뢰가 관련이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제시한다(Dekker & Uslaner, 2001; 박병진, 2007). 그러나 이 관점에 기반한 연구들은 개인의 기부행위가 비영리부문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전체 사회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활용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 역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다. 동시에 개인의 기부행위는 또한 타인을 위한 이타적 행위로서 기부자체에 대한 개인으로서의 의무감이나 도덕적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역시 간과한다.

개인의 기부행위는 실질적으로 비영리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들과의 신뢰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영리부문이나 활동에 대한 개인들의 신뢰는 자선활동이나 기부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인지이론은 기부자체에 대한 개인의 의무감과 같은 태도가 특정한 비영리조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하며 또한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함으로써(Cheung & Chan, 2000; Oosterhof et. al., 2009), 개인의 이타주의적이며 도덕적 태도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유용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부분-전체간 연계의 일관성에 대한 관점은 전체사회와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으로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다른 차원의 신뢰수준간 관계에 대한 논의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인지적 관점은 신뢰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다룬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론과 사회인지이론의 상이한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전체 사회와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수준이 타인을 위한 기부행위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부행위를 이끌어 내는 비영리부문과 기부자체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와의 관계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수준의 신뢰와 기부행위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 논의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몇몇 연구들이 신뢰나 개인의 기부에 대한 태도가 미래의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부액이나 기부경험 등과 같은 실질적 기부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논의하는 두 가지 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기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보여주는 개인의 태도,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신뢰 그리고 기부행위간의 관계를 구조화하여 이들간의 직, 간접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반적 사회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기부행위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요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사회신뢰의 수준과 사회참여로서 기부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 사회신뢰와 특정역할을 하는 부문이나 제도에 대한 신뢰간에 관계가 있다는 사회자본이론의 관점 그리고 개인의 행동과 태도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는 사회인지이론의 관점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모형은 전체와 부분간 연계의 일관성 관점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사회신뢰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인 기부대상으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개인의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학습을 통해 형성한 기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보여주는 태도가 타인을 위해 직접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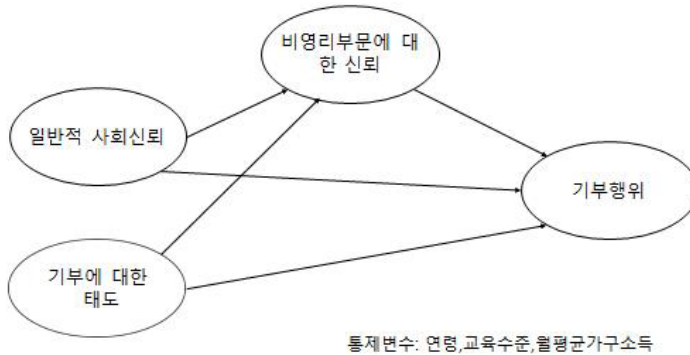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측정도구

본 연구는 아름다운재단의 2018년 기빙코리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기빙코리아는 한국사회 일반시민의 기부행위에 대해 2년마다 설문조사를 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18년 기빙코리아의 설문조사는 주민등록현황을 기반으로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비례할 당하여 19세 이상 성인 2,011명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웹조사의 방식으로 2018년 5월 14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다. 이 자료는 한국의 일반시민들이 2017년을 기준으로 기부여부, 기부액 및 기부기간 등 기초적인 기부행위에 대한 내용과 한국사회와 기부대상이 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 등에 대하여 응답한 내용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는 기부의도, 기부참여여부, 기부액, 기부지속기간 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의 지표만으로는 기부행위의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Hall, 2001), 회고적 응답의 경우 측정값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부행위라는 개념은 실질적 금액과 같은 기부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기부동기 및 기부대상 조직과의 상호작용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된다(Mosser, 1993).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주로 기부노력으로서 기부액이나 소득대비기부액 비율(강철희 외, 2015; Bekkers, 2003; Wang & Graddy, 2008)이나 향후 기부 의도(Cheung & Chan, 2000; Oosterhof et al., 2009) 등으로 기부행위를 측정해왔다. 또한 기부자와 기부대상이 되는 비영리 조직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부자의 충성도 역시 중요한 지표이며(Sargeant, 1999), 기부의 지속기간이나 기부중단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이전의 경험은 중요하다고 제시되기도 한다(Cheung & Chan, 2000). 본 연구는 기부노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기부액, 기부대상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충성도를 보여주는 기부지속기간과 이전 기부경험이 개인의 기부행위라는 잠재변수를 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기부행위의 단일 지표를 활용한 경우, 측정의 부정확성이라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3개의 기부 측정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잠재변수화 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부의도는 미래의 예측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았다. 기부경험은 2017년뿐만 아니라 이전의 경험까지 포함하여 참여여부로 측정되었다. 기부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1년간 기부한 금액으로, 기부지속기간은 기부를 시작한 이후 2017년까지 지속기간으로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해서 기부액과 기부지속기간의 측정값에 log를 취한 값을 활용하였는데, 기부를 하지 않는 경우(0값)를 분석에 포함하기 위하여 각 측정값에 일괄적으로 1을 더하여 이의 log값을 활용하였다. 세 측정변수로 구성된 기부행위의 신뢰도는 .724였다.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론에서 활용하는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신뢰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적 사회신뢰와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일반적 사회신뢰는 미국 General Social Survey가 개발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수준을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문항들은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 사회구성원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 사회의 안전에 대한 신뢰 등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총합이 사용되었으며 신뢰도는 .534였다.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는 Sargeant & Lee(2002b)가 개발한 문항의 일부를 수정한 것으

로 측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부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비영리조직들이 전반적으로 믿을 만한지, 그 조직들의 활동이 공공성과 사회적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부금의 모금과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5개의 문항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신뢰도는 .757이었다.

본 연구는 또한 기부행위 및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기부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상정하였다. 기부에 대한 태도는 Cheung & Chan(2000)이 개발한 문항 중 기부에 대한 의무감, 개인적 신념으로서 기부에 대한 인식, 기부가 전체사회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4개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각 문항의 총합이 사용되었으며 신뢰도는 .744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기부행위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어온 연령, 교육수준,

표 1. 기부행위 및 관련 요인의 측정 문항내용

구성체	측정변수	세부 문항	측정값
일반적 사회신뢰	C10_1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4점척도 (1-4)
	C10_2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C10_3*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C10_4	밤늦게 혼자 외출을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전하다	
비영리 부문 신뢰	C11_1	기부단체들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다	4점척도 (1-4)
	C11_2	기부단체의 운영은 윤리적으로 이루어진다	
	C11_3	기부단체들은 기부된 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C11_4*	기부단체들은 모금을 위해 기부자를 속이기도 한다	
	C11_5	기부단체들은 적절한 방식으로 모금활동을 수행한다	
기부태도	C9_1	나는 기부를 해야 하는 의무감이 있다고 느낀다	4점척도 (1-4)
	C9_2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기부단체들이 많이 있다	
	C9_3	기부는 나의 신념에 맞는 행동이다	
	C9_4	기부는 전체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기부행위	기부액	지난 1년간 기부액	천원(log)
	기부기간	조사시점까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한 기간	개월(log)
	기부경험	이전의 기부경험여부	있음/없음

* 역문항

가구소득(천원)을 활용하였다. 기부행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개인의 일반적 특성의 영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반적 특성 중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은 기부액이나 기부기간 등의 기부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지만, 성별, 종교유무 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박태규 외,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일관되게 제시되어온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표 2>와 같이 총 2,011명이며, 평균연령은 46.2세이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49%, 고등학교졸업이 48.8%로 거의 비슷한 비율이며, 중학교 졸업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매우 낮아 대체로 고등학교 이상의 높은 교육수준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52만원 정도였는데, 이는 2017년을 기준으로 전국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이 5,705만원, 월평균으로 환산한 약 475만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¹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반사항		빈도 (명)	비율 (%)
성별	여성	1017	50.5
	남성	994	49.4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7	0.3
	중학교졸업	37	1.8
	고등학교졸업	981	48.8
	대학교이상	986	49
합계		2011	100
연령(N=2011)		평균: 46.2세 (SD: 14.1)	
월평균가구소득(N=2011)		평균: 452.2만원 (SD:264.5)	

1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의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참고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기부참여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동안 기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46.7%로,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기부참여율 26.7%보다는 높았다.² 현재 기부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 중 이전에 기부를 참여해본 사람은 37.3%, 그리고 기부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9.4%였다. 이전의 경험까지 포함하여 한번이라도 기부참여를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0.6%로 대부분 기부참여 경험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부액의 경우 2017년 비기부자를 포함하여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평균 132천원이며, 현재의 기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약 249천원이었다. 평균 기부기간의 경우는 현재 기부자의 경우 약 71개월 정도였으며, 비기부자를 포함한 전체응답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38개월이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기부관련 특성

		빈도	비율 (%)	
기부참여	참여	1072	53.3	
	미참여	참여경험 있음	750	37.3
		참여경험 없음	189	9.4
	합계	2011	100.0	
		평균	SD	
기부액(천원)	기부자 (N=1072)	249.3	611.1	
	전체 (N=2011)	132.9	463.1	
기부기간(개월)	기부자 (N=1072)	71.2	81.4	
	전체 (N=2011)	38.0	69.3	

2. 측정모형 분석결과

〈표 4〉는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잠재변수들의 측정모형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측정모형의 모델적합도를 살펴보면 TLI .937, CFI .948로 모두 .900 이상이었으며, RMSEA는 .053 수준으로 괜찮은 적합도의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잠재변수를 구성한 측정변수들의 요

2 기빙코리아와 사회조사 결과의 차이에 대하여 연구대상자의 차이, 즉 전자의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 그리고 후자는 13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도별 경향성을 볼 때 각 년도의 기부참여율은 차이가 있지만 그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이보다는 그 지속적인 경향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2018년 기빙코리아 자료 참고)

인적재량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투입된 사회적 신뢰도, 기부에 대한 태도, 비영리조직 신뢰도 및 기부행위라는 잠재변수의 측정도구가 적절함을 보여준다.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요인계수	표준화 요인계수	표준오차
일반적 사회신뢰	사회신뢰 → C10_4	1.000	.305	
	사회신뢰 → C10_3	.740**	.245	.096
	사회신뢰 → C10_2	2.080**	.714	.178
	사회신뢰 → C10_1	2.192**	.772	.187
기부에 대한 태도	기부태도 → C9_4	1.000	.659	
	기부태도 → C9_3	1.148**	.737	.046
	기부태도 → C9_2	.727**	.486	.040
	기부태도 → C9_1	1.172**	.712	.048
비영리부문 신뢰	비영리부문 신뢰 → C11_5	1.000	.666	
	비영리부문 신뢰 → C11_4	.580**	.320	.045
	비영리부문 신뢰 → C11_3	1.426**	.828	.048
	비영리부문 신뢰 → C11_2	1.372**	.799	.047
	비영리부문 신뢰 → C11_1	.883**	.566	.040
기부행위	기부행위 → 기부경험	1.000	.332	
	기부행위 → 기부액	24.058**	.949	1.609
	기부행위 → 기부기간	19.473**	.924	1.296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651.958.031** (98)	.937	.948	.053

* $p < .05$, ** $p < .01$

본 연구모형에 투입된 주요 잠재변수간 공변량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사회적 신뢰도와 기부행위, 비영리조직 신뢰도 및 기부행위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5. 잠재변수간 공변량

	일반적 사회 신뢰	기부에 대한 태도	비영리부문 신뢰
기부에 대한 태도	.050**		
비영리부문 신뢰	.055**	.092**	
기부행위	.006**	.021**	.013**

*p<.05, **p<.01

3. 연구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는 일반적 사회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 및 기부태도가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신뢰와 기부행위 그리고 기부에 대한 태도와 기부행위간의 관계를 기부태도가 되는 비영리부문의 신뢰가 매개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우선 최종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이 735.031로 유의미했으나 TLI .930, CFI .941로 .90수준 이상 그리고 RMSEA .052로 .05에 근접하여 괜찮은 적합도 수준을 보였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735.031**	113	0.93	0.941	0.052

*p<.05, **p<.01

〈표 7〉은 연령, 교육수준 및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한 각 잠재요인들간의 경로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사회신뢰와 기부행위간의 직접적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적 사회신뢰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기부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어왔으나, 기부행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강철희, 2015). 그러나 사회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간의 경로계수 .673으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또한 시민들이 기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부태도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 및 기부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가 높은 경우에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기부액이나 기부기간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추가로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차원에서 모든 다른 변수들은 동일하고 기부행위 잠재변수 대신에 기부경험, 기부액, 기부기간 등 기

부행위를 구성하는 각 측정지표별로 단일 측정지표를 활용한 경로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기부행위 잠재변수를 활용한 원래 모형과 각 측정지표를 활용한 3개의 모형 간에는 모델적합도 및 유의미한 경로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사회신뢰	→ 비영리부문신뢰	.673**	.447	.073	
사회신뢰	→ 기부행위	-.020	-.050	.015	
기부태도	→ 비영리부문신뢰	.261**	.318	.027	
기부태도	→ 기부행위	.096**	.434	.010	
비영리부문신뢰	→ 기부행위	.654**	.123	.010	
통제 변수	연령	→ 기부행위	.000**	.067	.000
	교육수준	→ 기부행위	.021**	.110	.004
	월평균가구소득	→ 기부행위	.000**	.122	.000

*p<.05, **p<.01

〈표 8〉은 사회신뢰와 기부에 대한 태도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를 통해 기부행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를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우선 사회신뢰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를 통해 기부행위에 미치는 매개효과와 기부태도가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를 통해 기부행위에 미치는 매개효과는 모두 p<.01 수준에 유의미하였다.

표 8.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의 매개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사회신뢰 → 비영리조직신뢰 → 기부행위	.022**	0.007	0.055	0.028	0.085
기부태도 → 비영리조직신뢰 → 기부행위	.009**	0.003	0.039	0.021	0.059

**p<.01

이러한 구조방정식모형의 결과는 일반적 사회신뢰의 수준은 개인의 기부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신뢰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기부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반적 타자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사회신뢰의 수준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참여활동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지만(Putnam, 2000; 이재혁, 2006; 박병진, 2007),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즉,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서 사회신뢰는 기부행위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지만, 기부행위라는 것이 다른 사회구성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이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기부자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비영리조직들의 활동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부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회신뢰는 중요한 상황적 조건이 될 수 있으며, 기부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회구성원을 위한 지원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부행위에 참여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부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는 사회 내에서 타인을 지원하는 비영리조직의 활동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간접적인 효과까지도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부행위가 도덕적이며 이타주의적 속성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부에 대한 도덕적 태도가 실질적으로 이전의 학습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하면(Cheung & Chan, 2000), 기부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데 교육이 기여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V. 결론

본 연구는 기부행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학문적 그리고 실천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기부행위와 신뢰간의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두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일반적인 사회신뢰와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구분하는 사회자본의 관점과 개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가 미치는 영향과 전체와 부문에 대한 인식의 일관성에 대해 논의하는 사회인지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사회신뢰의 수준은 기부경험, 기부액 및 기부지속기간으로 측정되는 실제적인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론적인 수준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는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경험

적인 연구들은 이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는 기부행위가 다른 사회구성원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회신뢰의 수준이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기부를 매개하는 비영리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신뢰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일반적 사회신뢰의 수준은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는 일반적 사회신뢰수준과 부문에 대한 신뢰수준으로 구분되며, 이 두 차원의 신뢰수준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직접적인 기부대상이 되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결과를 고려할 때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긍정적 태도와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Bekkers, 2003).

셋째, 기부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의무감을 보여주는 기부에 대한 태도는 기부행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부의 대상으로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개인의 이타주의적이고 자발적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기부나 자선활동에 대한 도덕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회인지론적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일반적으로 학습이나 사회화 등을 통해 형성된다는 지적과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영리조직의 가치, 활동, 그리고 기부를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만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Sargeant & Lee, 2002b).

본 연구는 기부행위와 신뢰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간의 관계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지만, 신뢰를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합의의 부족 및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부행위가 전체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민의 참여활동의 한 유형일 뿐만 아니라, 이타주의를 전제로 한 개인의 자발적이고 도덕적 행위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개체로서 비영리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기부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의 수준을 일반적인 사회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로 구분하고 이들간의 관계 그리고 기부에 대한 개인의 도덕적 태도의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구성원과의 호혜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신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기부의 실질적 대상으로서 비영리부문에 활동하는 조직들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부행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부행위의 가치나 당위성에 대한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신뢰수준의 측정과 관련하여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신뢰의 수준을 사회적 차원과 실질적 관계를 맺게 되는 비영리부문에 대한 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연구의 대상이 특정한 개별 비영리조직의 기부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을 포괄함으로써, 여전히 기부자들이 선택하는 개별 비영리조직에 대한 신뢰의 수준을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좁혀 특정 조직에 한정하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적 신뢰와 특정 부문으로서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는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위기 상황이나 특정한 인구집단의 문제에 따라 기부행위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부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적 요소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연구는 이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신뢰와 기부행위를 포함한 사회참여간의 관계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으로 사회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논의된다. 이 축적과정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이한 차원의 사회적 신뢰와 비영리부문에 대한 신뢰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며, 또한 이렇게 형성된 신뢰수준과 기부행위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적과정을 통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본 연구는 특정한 한 시점에서의 횡단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시간적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는 기부행위나 기부와 관련된 개인들의 신뢰수준 및 기부에 대한 태도 등이 시간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종단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철희(2007). “기부 및 자원봉사와 신뢰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3), 5-32.
- 강철희·황지민·오양래(2015). “사회자본과 나눔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2.
- 이재혁(2006). “신뢰와 시민사회”. *한국사회학*, 40(5), 61-98.
- 박병진(2007). “신뢰형성에 있어 사회참여와 제도의 역할”. *한국사회학*, 41(3), 65-105.
- 박태규·윤병호·정진욱(2008). “기부횟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학연구*, 1(3), 79-100.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6). *2016 Giving Korea*. 서울: 아름다운북.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8). *2018 Giving Korea*. 서울: 아름다운북.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s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 – 147.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V., & Pastorelli, C. (1996).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364 – 374.
- Bekkers, R.(2003). Trust, accreditation, and philanthropy in the Netherland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2(4). 596-615.
- Bennet, R.(2006). Predicting the life time duration of donors to charity. *Journal of Nonprofit and Public Sector Marketing*, 15(1/2). 45-67.
- Bennett, R. & Gabriel, H.(2003). Image and reputational characteristics of UK charitable organizations: An empirical study. *Corporate Reputation Review*, 6(3). 276 – 289.
- Brown, E. & Ferris, J. M.(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 Cheung, C. K. & Chan, C. M.(2000). Social-cognitive factors of donating money to char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241-253.
- Cordery, C. J. & Baskerville, R. F.(2011). Charity transgressions, trust and accountability, *Voluntas*, 22. 197-213.
- Dekker, P. and Uslaner, E. M.(2001). Introduction, 1-8. in Dekker, P. and Uslaner, E.(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Hall, M. H.(2001). Measurement issues in surveys of giving and volunteering and strategies applied in the design of Canada’s National Survey of Giving, Volunteering and Participat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0(3). 515-526.

- Inglehart, M. R.(1991). *Reactions to critical life event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New York: Praeger.
- Knack, S. & Keefer, P.(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1251-1288.
- Meijer, M. M.(2009). The effects of charity reputation on charitable giving. *Corporate Reputation Review*, 12(1), 33-42.
- Mosser, J. W.(1993). Predicting alumni/ae gift giving behavior: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pproac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Newton, K.(2001).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Oosterhof, L., Heuvelman, A., & Peters, O.(2009). Donation to disaster relief campaigns: Underlying social cognitive factors exposed.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32, 148-157.
- Putnam, R.(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argeant, A.(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215-238.
- Sargeant, A. & Lee, S.(2002a). Individual and contextual antecedents of donor trust in the voluntary sect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8(7-8), 779-802.
- Sargeant, A. & Lee, S.(2002b). Improving public trust in the voluntary sector: An empir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1), 68-83.
- Sargeant, A. & Lee, S.(2004). Donor trust and relationship commitment in the U.K. charity sector: the impact on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3(2), 185-202
- Stolle, D.(2001). Getting to trust: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families, personal experiences and group membership, 118-133. in Dekker, P. and Uslaner, E.(eds.). *Social capital and participation in everyday life*. London: Routledge
- Uslaner, E. M. & Brown, M.(2005). *Inequality, trust and civic engagement*. *American Politics Research*, 33(6), 868-894.
- Wang, L. & Graddy, E.(2008). *Social capital, volunteering & charitable giving*, *Vohuntas*, 19, 23-42.

ABSTRACT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ust, Attitude toward Giving, and Giving Behavior

Rho, Yeonhee(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hung, Ick Joong(Ewha Womans University)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 is critical to individual donation. In order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giving behavior and trust, this study seek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ocial trust,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 attitude toward giving, and giving behavior. To this end, data from 2,011 adults aged 19 or older in the Beautiful Foundation's 2018 Giving Korea survey were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as follows. First, although general social trust did not directly affect giving behavior, it indirectly influenced giving behavior mediated by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s. Second, attitude toward giving not only directly affected giving behavior, but also indirectly mediated by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s.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practice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rust and promoting donations were suggested.

Key words social trust, trust in the nonprofit sector, attitude toward giving, giving behavior